

出現하였다. 증시贈諡와 더불어 부조不 의 은명은命이 내려졌으나 장방長房의 미현微顯 주손胄孫의 절사絶嗣에 왜호倭胡의 병선兵 을 경과經過하며 묘우廟宇는 미황未遑인 채로 신주神主가 봉사손奉祀孫의 주거住居에 따라 이전移轉하여 벽감壁龕에 봉안奉安되기에 이르렀다. 세歲 일구육팔년一九六八年 무신戊申에 천안지역天安地域 성환거成歡居 후손後孫 혁동赫東이 여가閭家에서 봉사奉祀하고 있던 신주神主를 십칠대손十七代孫 효식孝植 관식觀植 등이 합모合謀하여 개현介峴의 위산강尉山崗 차남次男婦 숙부인淑夫人 강화최씨묘江華崔氏墓 좌원左原에 미좌未坐로 당우堂宇를 창건創建하여 개건봉안揭虔奉安으로 필향苾香을 받들기 비롯하였다. 그러나 역양좌逆陽坐에 토대土垔가 음습陰濕하고 수목樹木이 울밀鬱密해짐에 따라 두해 害가 침범侵犯하여 이십수년二十數年을 감내堪耐키 어려운 바되니 일구팔팔년一九八八年 무진戊辰 하夏 오월五月에 차방손次房孫 창수공중중倉守公宗中의 현재獻財로 개현介峴 추원재사追遠齋舍 국내局內 황고皇考 문충공묘文忠公廟殿 좌하단左下端 해좌원亥坐原에 이전移建하고 신삼문神三門과 원장垣牆을 확충擴充하니 비로소 비침복寢의 의모儀貌가 중신重新되었고 이를 동역董役한 것은 혁성赫成 병흥炳洪 대안泰安 등등이었다. 연후然後 우과又過 이십여년二十餘年에 초반礎盤이 침하沈下하고 옥개屋蓋가 누수되비漏水頽 하여 이천구년二千九年 기축춘己丑春에 음성군陰城郡에서 배정配定한 충북도忠北道の 문화재보수에 산文化財補修豫算으로 이를 개수改修코자 하였으나 중수重修로써도 불가미흡不可未洽으로 판정判定되어 전면중건복원全面重建復元을 시행施行하니 일억여금一億餘金이 소요所要되었고 이를 특려주선特慮周旋함에는 본관本官의 권영동權寧東 부군수副郡守와 부군府君의 황고皇考 문충공대종文忠公大宗영위寧偉 도유사都有司의 공功이 불세不細하였다.

세歲 이천구년二千九年 기축己丑 매하월梅夏月 십팔대손十八代孫 오훈五焄 근기謹記 중후예宗後裔 상목相穆 근서謹書 십오대손十五代孫 중업重業 근각謹刻

● 안숙공부조묘중건상량문 安肅公不 廟重建上樑文 공덕여외산연도이수승석현각功德如嵬山羨道已豎崇石顯刻 강모우불멸운예연모궁구영궁羹慕又不滅雲裔延謀肯 靈宮 이신조두지의이진성여공봉以申俎豆之儀而盡誠於恭奉 비지위루관경물증제어윤환匪只爲樓觀景物增制於輪奐 경유아현조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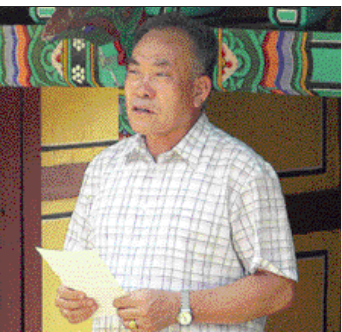
숙공부군실유사범대동양촌선생 문충공지계운敬惟我顯祖考安肅公府君實有師範大東陽村先生文忠公之季胤 초령오세 齡五歲 거애성년居哀成年 천자충오원락天資聰悟遠克 조사순량누석 早仕循良縷析 이신기신조화포지정교以神奇新造火炮之精巧 이은제무복거고지치술以恩制撫服巨賈之治術 승영릉교황고조역천면치수봉상설이수생민承英陵敎皇考兆域遷緬治修封象設而樹牲珉 계문경지걸곤과삼기역홀잉봉중형이보훈혜繼文景志乞郡瓜三期役設仍封仲兄而報訓惠 출충청경기경차다체사옥구결出忠淸京畿敬差多滯死獄救決 입사정전현릉탄기지초탁승선入思政殿顯陵歎器之招擢承宣 조신기이운이책훈정난遭神器異運而策勳靖難 우영신조림이위승경상遇迎新照臨而位陞卿相 명사부연언흠책환귀命使赴燕焉欽冊還歸 분우문약언야변익순分憂門焉野邊益駟 왕행이궁특령수필이숙환재발중신면불해王幸離宮特令守闕而宿患再發中愼勉不懈 환가주사특사운천이탁민폐중야재가언관還駕奏辭特賜溫泉而託民弊終也在家捐軀 경계자질구이항만팔세경상지가복과재생지리훈警戒子侄懼以亢滿八世卿相之家福過災生之理訓 유언자성돈이무존대체게술선세청백물부거지명遺言子姓惇以務存大體繼述先世清白勿赴舉之命 재양전대이규조현면상망연주익야익번과질중사 兩傳代而圭組軒冕相望聯珠益也益繁瓜 斯억장방미현주손절사병선천첩동연미항방안불천抑長房微顯胄孫絶嗣兵 疊棟椽未遑憑安不遷 근봉벽감사손전전이거궁공무귀인향僅奉壁龕祀孫轉轉移居兢兢無闕 享 연송중방장손중모업업궁당개건본필憐棟仲房孱孫重謀業業肯堂揭虔芬苾 초창당우불감이십재이수울두침草 堂宇不堪二十載而樹蔚 侵 사건확충우과재순세이침반뒤로徙建擴充又過再旬歲而沈盤頽漏 재차음우가획정부문화재예산在此陰佑嘉獲政府文化財豫算 적기본관전관중건복원지혜단適其本官全括重建復元之慧斷 금청화지춘계시공今淸和之春季始工 지매하지류월단수至梅夏之流月斷手 화각지영최이비침지모華閣之楹 而飛 之貌 주맹지린옥이조영지용朱淸之鱗屋而照映之容 황조소격지불하령차역흡협 어빈조지실皇祖昭格之不瑕靈且亦洽浹於曄藻之室 신명쾌찬웅진송추구원神明快贊雄鎮松楸邱原 천토우보건립추조경기天土有保健立柱礎景氣 윤일길신량允日吉辰良 협희력전래協曦曆軌 감술후곤지제사敢述後昆之諸詞 식조아랑지랑가式助兒郎之樑歌 아랑혜위포랑동兒郎兮偉拋樑東 가섭수봉신조홍迦葉修峯晨照烘 고묘자룡황고포顧母子龍皇考抱 만화일기서운충滿和一氣瑞雲沖 아랑혜위포랑서兒郎兮偉拋樑西 백곡청전우후제百穀靑田雨後齊 과질연

환재수과瓜 聯 材秀MV 무존대체환재미務存大體患 微 아랑혜위포랑남兒郎兮偉拋樑南 고읍반영음동랍故邑蟠蜺陰洞嵐 복세환언무성효復世還焉茂盛敦사민호학여추담土民好學如秋潭 아랑혜위포랑북兒郎兮偉拋樑北 백악열양신원국白嶽洌陽宸遠國 위사충군소자랑爲社忠君宵自諒 종사이연불기억 斯以演不幾億 아랑혜위포랑상兒郎兮偉拋樑上 덕업응수성백창德業凝宿星魄昶 불후천년능우세不朽千季凌雨洗 공륜환혁건곤랑空輪煥赫乾坤朗 아랑혜위포랑하兒郎兮偉拋樑下 구학영증명멸야溝壑影增明滅也 준석연모잉예집 席燕毛仍裔集 유방수하계풍야流芳垂 啓風治 복원상량지후척강의구필향익결 존령여재소격계휴伏願上樑之後陟降依舊苾香益潔尊靈如在昭格 啓休 성순지접씨孫趾接 과자식침過者式瞻 수일월지상질雖日月之相迭 약반태지불이若盤泰之不移 여천영소與天永昭 물취무강勿毀無疆 창룡蒼龍 이천구년二千九年 기축己丑 만하월晩夏月 십팔대손十八代孫 오훈五焄 근찬謹撰 중후예宗後裔 상목相穆 근서謹書 십오대손十五代孫 중업重業 근각謹刻 공덕이 높은 산과 같이 솟아 묘소길에 이미 두드러지게 새긴 높다란 비석을 세우고, 그 그릇을 대하면 그리운 마음이 불멸인 후손이 도모하기를 더하여 기꺼이 영혼을 모실 사당을 지어, 이로써 제물을 의식으로 드려 공경히 받드는 정성을 다하니, 이는 다만 집체의 훌륭한함으로써 빛나는 경관을 더하려는 것 뿐만이 아니로다. 공경히 헤아리건대 우리 훌륭한 할아버님 안숙공부군은 실로 대동의 사범이신 양촌선생 문충공의 막내아드님으로서, 어리신 5세에, 부친상에 성인같이 애통하고, 타고나신 자질이 총명하고 먼 지략이 있어, 일찍 벼슬에서 순량리로서 실마리를 푸는데, 신비한 발명으로 정교한 화포를 제조하고, 은혜와 제압으로는 거상을 무복시키는 치술을 보이셨네. 세종대왕의 교명을 받들어서는 아버님의 묘역을 면례하여 다스려 수축하고 석물을 베풀며 신도비를 수립하고, 중형 문경공의 뜻을 이어서는 고을살이를 빌어 세 임기를 넘기며 역사를 마치고 중형도 치장하여 그 가르친 은혜에 보답하시며, 충청·경기의 어사로 나가서는 많이 침체된 옥사를 해결해 죽을 자를 살리고, 궁궐 사정전에 들어와서는 문종대왕의 찬탄을 들으며 승지로 발탁되시었는데, 왕위가 이동하는 변운을 만나서는 정난공신에 책훈되고, 새 임금이 임하는 것을 맞이해서는 지위가 경상으로 올라, 사명을 받아 명나라에 가서는 책봉을 받들어 돌아오시고, 변방 관문의 관찰사로



▲ 봉안례 후 부조묘 내정에서 작은 경과보고회가 열리고 있다.

나아가서는 야인을 더욱 길들였는데, 국왕이 이궁에 행차하심에는 특별히 궁궐을 수직케 하니 숙환이 재발함에도 삼가고 힘써 게을리 하지 않고, 어가가 돌아와 사직을 아뢰자 임금이 온천옥을 하사하여도 민폐를 청탁해 끝내 집에서 별세하셨네. 자질을 경계하여서는 차서 넘치는 것을 두려워하여 8대의 경상 집안이라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기는 이치로 가르치고, 자손에게 유언해서는 힘써 대체를 지키는 것을 도타이하고 선대의 청렴결백을 이어받아 과거에 나가지 말라 명하시니, 겨우 양대가 지나서는 벼슬의 인끈과 관모와 수레가 서로 바라보듯 이어 펜 구슬과 같이 되고 대가 더할수록 불어나는 자손이 오이와 복치와 메뚜기같이 많아지나, 한편으로는 만자손이 현달하지 못하고 종손의 후사가 끊기며 병란이 거듭하여 들보와 서까래로 지을 겨를이 없으니 불천지위가 의지해 계실 곳이 없는 데, 겨우 벽감에 모시며 봉사손이 전전하여 이거하면서도 두려워 떨며 제향을 꺾하지 아니하니, 들쭉잡의 잔약한 후손이 가련히 송구스러워하며 거듭 겁내면서 사당을 지어 경건히 제물을 올렸도다. 처음에 지은 당우는 20년을 감당치 못하고 울창한 나무 그늘에 쏙벌레의 침식을 당하고, 옮겨 지어 확충하니 다시 20년이 지나자 지반이 가라앉고 기울어 비가 새는데, 이때에 몰래 도우심으로 정부의 문화재 예산을 획득하고, 마침 본고를 관원이 총괄로 중건복원케 하는 해단을 내림에 따라, 금년 4월 봄철에 공사를 비롯하여, 매실의 여름 6월에 손을 떼게 되니, 빛나는 각우의 기둥과 서까래 끝은 날아가는 처마의 모습이 고, 붉은 용마루와 고기비늘 지붕은 비쳐 반사하는 모양이로세. 크신 할아버님의 밝게 이르시는 바 티없으신 영혼께



▲ 권영위 문충공중회장이 인사말을 곁하여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서 또한 제향을 받드는 방에 두루 흡족하시고, 신명이 쾌히 도와 묘소가 계신 언덕이 웅혼하게 눌러주시며, 천지가 보호하여 기둥과 주추에 좋은 기운을 굳세게 세워주나니, 해가 좋고 날씨가 길한 바를 가리고, 태양의 궤도가 협화함에 맞추어, 감히 후손의 여러 말글을 지어, 이로써 어영차 하는 들보의 노래를 돕노라. 어영차, 들보를 크게 동으로 들어올림이며, 가섭산·수리봉에 새벽 빛이 붉으니, 자룽고모형국에 아버님이 감싸주시고, 가득한 화기에 상서로운 구름 채우누나. 어영차, 들보를 크게 서으로 들어올림이며, 비온 뒤 푸른 전야에 백곡이 가지런한데, 수많은 후손 온 세상에 연하여 뻗어난 재목도 많고, 대체를 힘써 지녀 재앙이 없네. 어영차, 들보를 크게 남으로 들어올림이며, 옛 고을 음성에 아지랑이 서리는데, 다시 세상이 돌아와 가르치는 소리 무성하고, 선비백성 배우기 좋아하기 가을 연못과 같도다. 어영차, 들보를 크게 북으로 들어올림이며, 백악과 한수 북안임금의 서울 멀리 있지만, 사직을 위하고 임금께 충성함 하늘이 스스로 헤아리니, 그 후손 퍼지는 것 수효를 알 수 없네. 어영차, 들보를 크게 북으로 들어올림이며, 덕업이 성수에 모여 별빛 찬연하고, 천년토록 삭지 아니하여 비에도 씻기지 않아, 공중의 달처럼 밝

9면으로 계속



▲ 중건 복원된 안숙공부조묘의 전경